

# 내년도 생활임금 1만835원 확정

## 전북도, 올해보다 584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대비 118%

2022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835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원·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2022년 전북도 생활임금은 전북도 생

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이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전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적용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호상 기자

#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집중 단속 펼친다

## 전북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어업질서 확립 위해 관계기관 합동 실시

전북도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월 한 달 동안 해상 및 육상에서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법무부, 전북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도는 어업지도선 4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 경계 위반 불법어업,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어업, ▲허가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양식장 무단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도는 올해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한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어구(낚시망) 설치 및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관내 어업권 보호에 힘을 기울인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한다. 아울러, 도는 해상 및 육상 단속을 병행해 비어업인·어업인 등을 대상



전북도가 10월 한 달 동안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전북특구본부, 스타트업 투자 촉진 위한 모의 기업설명회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 이하 전북특구본부)가 '초기창업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모의 기업설명회(JB STAR+ 모의 IR 피칭데이)'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지난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구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발된 6개 유망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전 기업설명회(IR)와 동일하게 개최됐다. 참여 기업은 사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으며, 발표 후 5인의 투자 심사역을 통해 1:1 밀착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 기업설명회에는 ▲와우차우(썬푸드 제조 및 서비스 플랫폼), ▲썬이노션(모바일게임 및 드론 개발), ▲썬셀코(폴리식재 의료기기), ▲썬픽스아이티(개피리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밴드), ▲썬더리공(저온냉장 대량 더치커피 추출기), ▲썬에스앤이(비밀 차단 기능을 고온 에어컷튼 가림막 장치) 등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소개됐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폴리식재 개발을 진행하는 썬셀코는 원천기술 확보,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초기창업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모의 기업설명회(JB STAR+ 모의 IR 피칭데이)'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지난 30일 개최했다.

수익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심사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참석한 스타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5개의 투자 기관은 우수 기업을 선발해 실전 투자유치행사(데모데이)에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IR 자료 제작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구본부는 특구 지정이후 지난해까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총해 77개사 대상 339억 원의 투자유치를 지원했다. 올해도 유망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육해 80억 원의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철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방안으로 자금유치와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2차 지역협의회 개최

전북도가 바다의 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29일 '해양공간관리계획 2차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을 대신해 특성과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선계획 후 이용' 체제로서, 해양공간을 9개 용도구역으로 나뉘어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9개 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 환경·생태계관리,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구역 등이다. 이번 2차 지역협의회에는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북도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역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지역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에 최종적으로 '전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위원회의 위원(24명)은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이후, 용도구역 변경과정에서도 의견제시 및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 체육 활성화·발전 위해 힘 모은다

## 전북체육회·14개 시·군 체육회 결집

전북체육회와 14개 시·군체육회가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전북 시·군체육회장협의회(회장 강광는)는 간담회를 열고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체육꿈나무 선발대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정강선 회장을 비롯해 도내 각 시·군체육회장들이 참석했다. 먼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전에 대한 전북 선수단 출전계획 보고가 있었

으로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내용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 시에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았으나, 법령 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 행위까지 확대 처벌돼,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서재희 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며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어업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므로, 향후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다.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고등부만 열리고 대학·일반부는 열리지 않아 도내에서는 461명의 고등부 선수들만 출전한다. 또한 도민체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도민체전은 코로나19로 인해 각 시군으로 분산 개최된다. 최근 막을 내린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전북체육회가 체육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대회로 운동 선수를 제외한 300명이 넘는 일반 학생(초등 4년~중 1년)들이 참가했다. 아울러 이날 회장단은 도지사과 도교육감, 시·군단체장 선거가 치러지

는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체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趁체 돼 있는 체육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도 체육회를 중심으로 시·군체육회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체육의 깊이와 중요성을 비롯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체육의 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강선 회장은 "전북체육회와 시군체육회가 원팀이 된 만큼 전북 체육은 한국 체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며 "전북 체육 활성화를 위해 큰 힘을 준 시군회장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 공고 제2021-1567호

## 고창 세영개발(주)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창 세영개발(주)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고창 세영개발(주) 석산개발사업
  - 나. 위치: 전북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산64-12번지 일원
  - 다. 계획규모: 234,413㎡(기허가부지 53,259㎡, 신규개발지 181,154㎡)
2. 공청회 개최
  - 가. 공람 일시: 2021년 10월 19일 10시 00분
  - 나. 공람 장소: 전북 고창군 성송면 성송체육회관
3. 의견진술자 추천서 제출처(기한)
  - 가. 제출기한: 2021. 10. 12일까지 제출
  -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이 공청회의 의견진술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작성해 고창군청 산림공민과로 제출
  - 나. 추천방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붙임 참고) 작성 후 서면 제출)
  - 다. 제출장소: 고창군청 산림공민과(☎ 063-560-2601)
4. 기타사항
  - 가.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개최 당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석인원을 선착순으로 제한할 예정임
  - 나.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산림공민과(☎ 063-560-2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일 고창군청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